2.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1) 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즉 이야기에서는) 장자와 탕자 모두가 아버지께 대해 사랑이 전혀 없는 반항을 하고 사는 죄를 지었다. 두 아들은 자신들이 가질 유산의 상속권이 자신의 것이 되는 날, 즉 살아 계신 아버지가 빨리 죽을 날을 바라고 있었다. 아들들은 말로나 행동으로써,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야기에서는 야훼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 언약백성이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것이다. 언약백성 모두가 지도자들이든, 일반백성들이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히 감사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묘사한 것이다 (마태복음 22:37,28).

2) 회개: 참 회개란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받아 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은 이를 달리 설명하였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회개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만 하며, 온전히 그 요소들을 전통에 의거하여 만족시킬 때에야 만이 인정된다: 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다; 나)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모두 배상을 한다; 다) 지은 죄에 대한 희생 제사물로 죄의 값을 치른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완전히 만족시켜야 회개가 완성되어, 하나님으로 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얻게 된다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그러 하기에,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 받기 위해, 죄의 고백과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며, 죄값을 희생제사물로 치루는 노력을 완성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저 의지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회개하려면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장로들이 하였다. 즉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죄인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죄를 짓고 숨었던 회개할 생각 조차도 못하였던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 오셨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죄를 지은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무조건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 가는 생각과 행동을 일단 시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의 말씀들이 이러한 진리를 서로 상충하는 듯하기에, 장로들은 예레미야 애가 5:21절 “오 야훼시여, 야훼께서는 우리를 야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이키리이다.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말라기 3:7절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 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 가리라.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 가리이까? 하는도다”라는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답을 만드는 전통을 성립하고 그리 실천하도록 가르친 것이다. 당연히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과 언약백성이 합력하고 노력해야만 완전한 회개와 죄용서가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였다. 참된 회개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만 한다면, 거저 주시는 야훼의 자비와 은혜가 과연 존재할 자리가 회개에 있을까?

3) 자비/은혜/사랑: 메시야께서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하시며 이루신 모든 공적 덕분에, 복음을 통해 그 공적을 선포할 때, 모든 언약의 자녀들은 그 분의 공덕으로 인해 회개를 하면 죄용서를 받게 된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언약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자신을 동네사람들과 종들 앞에서 스스로 낮추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두 아들들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것으로 드러난다. 돌아 온 탕자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스스로 낮추시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모두 덮어 주시면서 자기를 아들로 받아 주신 용서하시는 사랑을 맛보았다. 장자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재산이 여전히 장자만의 것이며, 모두가 돌아 온 탕자의 무사귀환을 크게 기뻐해야 한다는 명령을 선포하시며 그에게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과연 장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까? 모두와의 관계를 완전히 인정하고 회복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모두와의 관계를 여전히 무시하면서,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거저 주시는 용서를 맛을 보지도 않고 위선자로 자신만의 세계 속에 안주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계속 살아 갈 것인가?

4) 큰 기쁨: 아버지는 장자에게 말하기를, 무사히 건강하게 동생이 돌아 온 것을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다. 탕자가 돌아 왔다고 해서 탕자의 귀가하려는 노력이 아버지의 죄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획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탕자는 단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아버지의 변함없으실 사랑을 무조건 일단 믿고 귀가를 결심하고 결행했던 것이다. 그처럼 아버지를 무조건 믿고 “탕자가 무사하게 돌아 온 것”만으로도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아버지의 반응이었다. 하늘에서도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5:6,7,32; 마태복음 18:13).

5)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 공개적으로 체면을 잃으신 아버지에게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두 아들들이 모두 여전히 자신의 사랑을 받는 아들들이요, 결코 자신의 고용인도, 종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여전히 상속받을 유일한 아들들이다. 큰 아들의 위선적인 반항도, 탕자의 드러 내어서 저지른 반항도, 그들을 변함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에게는 모두 용서받게 되는 것이며, 그들은 여전히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매일 생활하면서, 이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드러내지 않고 산다면,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자비와 사랑을 받아 죄 용서받았다고 감히 선언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낮추시기까지 하셔서 이루신 모든 공적과 그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삶에서가 아닐까?

6) 죄 용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까지 위선자들을 위해 죄용서를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의 일부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사실이다. 위선자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경우이다. 하지만, 언약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과 삶을 끝까지 거절하고 무시한 대부분의 장자들, 즉 위선자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시에 모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하게 용서 받지도 못하고 영멸하였다. 만약에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드러 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늘의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죄를 용서받고 사는 자녀라고 당당히 인정할 수 있을까? 이웃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사랑을 맛보며 사는, 진정으로 아버지께 회개한 후에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진정된 표식임을 알면서 우리는 살아 가는가? (마태복음 5:23,24; 6:14,15; 18:35; 마가복음 11:25; 누가복음 6:37; 17:3,4; 로마서 12:15; 고린도전서 13;5; 고린도후서 2:7,10; 에베소서 4:32; 골로새서 3:13; 창세기 50:17; 출애굽기 10:17; 사무엘상 15:25; 25;28; 참조귀절: 누가복음 23;34; 6;27; 마태복음 5:7,46; 누가복음 11;4;요한일서 3:15)